

청년세대의 주의력결핍성향(ADHD성향)과 스키마(Schema)가 기업가지향성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ADHD-like Behavior and Schema of Youth Generation on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김영수, 정희도

충실대학교 경영대학 벤처중소기업학과

Young-Su Kim(venture@ssu.ac.kr), Hoi-Do Jeong(tacaso@naver.com)

요약

많은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들이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과 같은 긍정적인 특성을 중점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해외에서는 ADHD 성향(주의력결핍성향)과 같이 부정적인 특성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ADHD 성향이 기업가지향성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주로 기회발견과 기업가적 기민성에 초점을 둔 특성인 스키마가 기업가지향성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리서치 회사를 통해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ADHD 성향은 위험감수성과 혁신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미래지향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키마는 기업가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가지향성도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ADHD 성향이 높을수록 미래지향성이 낮아서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스키마는 기업가지향성을 통해서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청년 | 주의력결핍 | 스키마 | 기업가지향성 | 창업의도 |

Abstract

Many studies of entrepreneurship have focused on positive characteristics such as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However, recent studies are being conducted to find out effects of negative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ship, such as ADHD-like behavio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of ADHD-like behavior on Entrepreneurial Orientation(EO)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EI).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of schema related to opportunity recognition and entrepreneurial alertness on EO and EI.

Data were collected from youth generation in Korea through online survey. The results show that the ADHD isn't significant for both risk-taking and innovativeness, but it has negative impact on pro-activeness. On the other hand, Schema has positive impact on all EO and EO has positive impact on EI. As a results, The higher ADHD-like behavior, the lower pro-activeness. Therefore ADHD-like behavior could lower EI through pro-activeness. However, Schema has positive impact on all EO, which has positive impact on EI.

■ keyword : | Youth Generation | ADHD | Schema | Entrepreneurial Orientation | Entrepreneurial Intention |

I. 서론

2014년 세계적인 경제지인 Forbes 에 ADHD : <The Entrepreneur's Superpower> 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 기사는 버진그룹 창업자 리차드 브랜슨, 이케아 창업자 잉바르 캄프라드, 젯블루 창업자 데이비드 니만을 소개하고, 이들의 공통점은 ADHD(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이하ADHD) 진단을 받은 기업가라는 것으로 시작된다. 핵심 내용은 ADHD 진단을 받은 사람은 8시간 동안 교실에 앉아 있거나 사무실 책상에서 해야 하는 업무에는 불리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위기관리, 멀티태스킹, 해결책 도출 능력은 창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1].

이런 배경으로 해외에서는 ADHD(주의력결핍성향)와 기업가정신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가 2014년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몇 가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Dimic과 Orlov[2]는 재활지원센터를 통해 27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ADHD 증상 진단을 받은 사람이 기업가가 될 가능성이 3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DHD 증상의 성인이 자율성과 독립심이 더 높고, 위험감수에도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Verheul외[3]는 네덜란드의 38개의 대학에서 약 75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ADHD 성향의 학생들은 창업의도가 2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Knouse외[4]와 Halbesleben외[5]는 ADHD 성향의 사람들은 꾸준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직장생활을 견디지 못하는 측면이 강해서 이런 점들은 기업가정신에 있어 잠재적인 문제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Wiklund외[6]는 ADHD 진단을 받은 15명의 기업가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ADHD 증상 중 특히 충동성이 기업가적 행동에 자산이 될 수 있으나 창업의 성과 측면에서는 낮은 수준의 성과를 보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ADHD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ADHD 성향이 기업가지향성과 창업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는 것이다. 기업가정신분야의 선행연구에서는 사람

들의 자아효능감, 셀프리더십과 같은 긍정적인 특성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기업가정신이란 불확실하고 복잡한 맥락 안에서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DHD성향은 의사들에 의해 진단되는 질병으로 ADHD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최근 해외의 선행연구들의 흐름과 같이 부정적인 특성이라고 여겨지는 ADHD 성향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으로는 한국의 청년세대로 정하였고 청년세대 중에서도 1995년 생 이후 출생한 Z세대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ADHD 성향의 청년들이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ADHD 성향과 기업가지향성 및 창업의도의 연관성 연구를 통해 청년창업교육과 지원사업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2017년 5월 미국의 포레스트 컨설팅(Forrester Consulting)의 조사에 따르면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출생)는 Y세대(1980년~2000년 출생)보다 즉각적인 대응을 원하고 처리 속도에 민감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코트라 뉴욕무역관보고서[7]에 의하면 Z세대의 평균 집중시간이 8초이고, 이는 점점 더 짧아지고 있으며, 2015년의 조사에 따르면 4~17세 11%가 ADHD 질병을 앓고 있는데 이것은 2003년 7.8%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보고에서 연령별로 살펴볼 때 19세 이하에서는 ADHD 환자가 다른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스키마가 기업가지향성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스키마(Schema)는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체계화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신적 체계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Kunda[8]가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저장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기회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스키마는 요즘처럼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정보가 넘쳐나는 환경에서 창업 아이디어와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스키마가 높은 사람이라면 기업가지향성과 창업의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인 Z세대에서 스키마에 관한 연구는 더 의미가 있다. 가장 권위 있는 세계적인 트렌드 조사기관 중 하나인 WGSN(2016) 리포트에 따르면, Z세대는 ‘순간 집중력’이 뛰어나고, 이들의 두뇌는 이전 세대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인지를 요하는 문제에 능하다고 보고하였다. 코트라 보고서[7]에서는 Z세대는 Y세대보다 반응속도가 빠르고 타인이 만들어 낸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 보다는 자신이 직접 만드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ADHD와 스키마가 기업가지향성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년 세대들에게 어떤 창업 교육과 지원방안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구성으로는 I 장은 서론, II장에서는 ADHD와 스키마가 기업가지향성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그에 따른 가설을 제시한다. III장에서는 연구모형과 연구방법, IV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후 마지막 V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시사점과 한계점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 및 가설

1. 기업가지향성

기업가정신 연구에서 기업가정신과 기업가지향성의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창업을 시작하게 도와주는 특성이고, 기업가적 지향성(Entrepreneurial Orientation)은 사업을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Lumpkin과 Dess[9]는 기업가적 지향성은 기업가정신을 갖고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방식과 프로세스 및 실행방식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조직수준의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였다.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가지향성은 주로 조직수준의 연구에서 언급되었다. 기업가지향성을 대학생들에게 적용한 선행 연구들이 있었지만 개인 수준의 기업가지향성 척도 개발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Bolton과 Lane[10]는 1,102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인의 기업가지향

성 척도 Individual Entrepreneurial Orientation(IEO)개발 연구를 진행하였고, Lumpkin과 Dess[9]가 주장한 기업가지향성의 정의인 경쟁적극성(Competitive aggressiveness), 위험감수성(Risk-taking), 자율성(Autonomy), 미래지향성(Proactiveness), 혁신성(Innovativeness)을 하위 요인으로 하는 IEO 변수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위험감수성, 미래지향성, 혁신성만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Bolton & Lane[10]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기업가지향성을 측정하였다.

2. ADHD 성향

ADHD는 일반적으로 아동기에 발견되는 신경발달적인 장애이다[11]. ADHD는 한 때 발달적 장애라 생각되어져 아동이나 청소년 시기에 나타났다가 성인기 이후에 없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ADHD 아동 중 50~70%가 성인되고나서도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 보고되면서 ADHD가 전생애적인 발달장애로 인식되고 있다[12]. ADHD의 주요 증상은 부주의, 과잉행동, 충동성이다. 이 중 과잉행동은 청소년기에 서서히 줄어들다가 성인기가 되면 거의 사라지지만 부주의와 충동성은 성인기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11].

미국에서는 성인의 약2~6%가 ADHD 진단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학생 집단에서는 약 10%가 임상적으로 유의한 ADHD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14]. 한국의 경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문선과 광호완[15]의 연구에서 6%가 ADHD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통계를 보면 20세 이상 성인의 ADHD 진단 비율은 2008년도에 비해2012년도에는 약 2.8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6].

Kessler외[17]는 668명의 임상 실험자를 대상으로 ADHD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ADHD Self-Report Screener (ASRS-6)척도를 만들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ADHD 성향 측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기존의 18개의 질문의 문항을 6개로 줄인 ASRS-6 척도가 개인의 ADHD 성향을 식별함에 있어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질문 구성은 4개의 주의력결핍 질문

과 2개의 충동성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ASRS-6 척도를 활용하였다.

2.1 ADHD성향과 기업가지향성

ADHD 성향의 사람들은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고, 주의력이 부족하며, 규칙적인 업무에 참을성이 부족하다 [18].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개인들은 직장에 적응하기가 어려우며[19], 관리감독이 느슨하고 그들에게 독자적인 영역을 제공하는 일을 찾는다. 게다가 이들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독립적인 일을 선호한다[20]. 그러므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자유와 자율성을 원하는 ADHD 성향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창업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21].

ADHD 성향과 기업가지향성에 관한 연관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ADHD 성향의 성인들은 낮은 통제력 때문에 발생하는 실직과 같은 실패를 일반적인 사람들도 보다 더 많이 겪게 된다. 실패가 행복한 삶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22][23]에 반해 최근 연구결과[24]는 실패가 회복력을 만들어 주고 적당한 역경을 겪은 개인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과 실패를 잘 다룰 수 있게 되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여주었다. Wilmshurst외[25]는 대학생 17명과 대학원생 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ADHD 때문에 겪은 실패는 회복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취하는 능력을 개발하게 도와준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Young[26]은 ADHD 진단을 받은 성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ADHD 진단을 받은 44명과 ADHD 증상이 없는 34명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ADHD 진단을 받은 성인들은 연속적인 변화와 스트레스 상황을 헤쳐나올 수 있는 높은 회복력을 보여준다고 보고 되었다. 이러한 회복력은 높은 위험과 제한된 자원 속에서 인내해야 하는 기업가들에게 요구 되어지는 기본적인 덕목이다[27]. 결과적으로 ADHD 성향의 성인들은 스트레스 받고, 불확실하고 역경이 연속되는 환경 속에서 동료들보다 잘 견뎌낼 수 있다. 위험감수성은 이익과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한 상황 하에서 이를

과감하게 받아들이거나 회피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ADHD 성향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자신감 때문에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 ADHD 성향은 위험감수성에 긍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ADHD의 충동성 측면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한다. 과잉행동 증후군이 있는 대학생들과 ADHD진단을 받은 성인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선행연구[28]가 이를 뒷받침한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을 좋아하고[29], 특히 신기한 자극이 있는 새로운 환경을 탐험하고 그것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다[30].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목표 의식을 고취시켜준다[31]. White와 Shah[32]는 361명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ADHD 성향의 사람들은 창의력 테스트인 ATTA(the Abbreviated Torrance Test for Adults)에서 ADHD 성향이 아닌 학생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고, 삶에서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32]. 또한 이들은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일 보다는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일을 더 선호한다[33]. 혁신성은 개인이나 조직이 새로운 생산방식, 제품 및 아이디어 등을 도입하여 새로운 시장기회를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ADHD 성향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일을 선호하기 때문에 혁신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논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2 : ADHD 성향은 혁신성에 긍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Marx외[34]는 ADHD 진단을 받은 40명과 진단을 받은 경력이 없는 39명을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ADHD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주의력과 인내심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기업가적 기회가 맞는 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불확실하고

복잡한 정보 가운데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야 하는데 [35]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들은 정보를 선별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잘 하지 못한다[36]. 그리고 그들은 정확한 상황판단과 결론을 내렸는지 스스로를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걱정과 불확실성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37]. 게다가 창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평균 3년이 걸리고[38] 창업을 시도한 절반정도가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되기 전에 포기한다[39]. 위의 논거에 따르면 ADHD의 성향인 사람들의 주의력과 인내심 부족은 기업가지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Wiklund외 [6]의 ADHD증상 중 충동성이 창업의 성과 측면에서 낮은 수준의 성과를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미래지향성은 미래를 예측하여 남들보다 빠르게 기회를 인식하고 창업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ADHD 성향의 사람들은 인내심이 부족해서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창업을 실행으로 옮기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까지 참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위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3 : ADHD 성향은 미래지향성에 부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 스키마(Schema)

스키마(Schema)는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체계화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신적 체계이다. 스키마는 역동적이고 진화되는 멘탈모델로써 지식을 정리하고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식을 변화시킬 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특정 사건이나 개인의 직감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구체화시키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안내자 역할을 한다[40]. 그러므로 스키마는 기업가들이 시장을 이해하고 기회를 포착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가들의 잘 개발된 스키마는 새로운 기회를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도와주고, 기업가지향성에도 긍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E. Ozgen과 Baron[41]의 연구에서는 스키마를 더 잘 개발할수록, 새로운 사업 기회를 더 잘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스키마가 기회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Gaglio과 Katz[40]가 제안한 것과 유사하다. 이들은 특히 성공한 기업가들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유리한 스키마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스키마의 조작적 정의는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저장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기회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8]. 선행연구에서는 스키마와 기회발견과의 연관성을 연구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스키마와 기업가지향성에 연관성을 연구하였다. 따라서 스키마 측정은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척도를 기업가지향성과의 연관성 측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8][41].

3.1 스키마와 기업가지향성

스키마는 정보를 통해 기회를 파악하면서 더욱 확장되고, 복잡해지고, 명확해지고 구조화 되면서 강력해진다[41]. Fernandez-Perez외[42]는 188명의 스페인 기업의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잘 발달된 스키마는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기회를 정보 검색 없이 알아차리는 능력인 기업가적 기민성에 긍정의 영향을 준다고 보고 하였다. Ozgen과 Baron[41]는 발달된 스키마는 변화와 시장 불균형을 탐색하고 관찰하게 만들며, 현재의 스키마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일치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의 스키마를 조정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스키마가 발달한 사람은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적절하게 대처하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감수성이 높을 것이다. 위의 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4 : 스키마는 위험감수성에 긍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스키마는 통찰력, 정보처리, 문제해결, 판단, 학습 그리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43], 최고 경영자들이 의사결정시 사용하는 지식 구조를 말한다[44]. Dutton 외[45]는 잘 알려진 전략적 의사 결정 모델인 PIMS(Profit Impact of Market Strategies)와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시장분석모델을 분석한 결과 CEO들은 스키마를 통해 정보를 걸러내고 전략적 행동에 관련된 다

양한 측면들을 고려한다. 또한 스키마를 활용해서 인과 관계를 이해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고 보고 하였다. Thomas외[46]은 텍사스 주에 있는 병원최고경영자 15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스키마는 회사가 처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보고하였고, 이는 Fiol과 O'Connor[4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잘 발달된 스키마는 CEO에게 변화, 특정 산업, 특정 사회 환경들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더 잘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스키마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추구하는 혁신성에 긍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위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5 : 스키마는 혁신성에 긍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스키마는 CEO의 의사결정에 이용되는 지식 체계이다[48]. 스키마의 발달은 CEO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거나 만들어내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긍정의 영향을 미친다[49]. Fernandez-Perez외[50]은 스페인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과학연구자 63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스키마가 발달된 사람은 발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고, 심지어 자신의 경험이 부족한 분야에서도 자신감을 갖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스키마는 대안책들을 탐색하고 진단하는 것을 촉진시킴으로써 전략적인 행동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후속 정보들을 참고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한다[51]. 결과적으로 그들은 기회를 찾거나 만들어내는 것에 진취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52]. 따라서 스키마가 발달된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여 남들보다 빠르게 기회를 인식하고 창업행동을 취하는 미래지향성이 높을 것이다. 위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6 : 스키마는 미래지향성에 긍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4. 기업가지향성과 창업 의도

의도는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53]. 창업과 같은 많은 사회적 행동은 자

발적으로 통제하고 이런 행동들은 의도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4]. 창업의도는 창업을 현재 시작한 상태가 아니라 창업을 실행하기 위해 개인의 관심이 발생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55]. 본 논문에서는 창업의도를 새로운 창업을 실행하기 위한 개인의 관심과 경험을 강조하는 마음상태로 정의하였다[56]. 창업의도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되어져 왔고, 대학생 창업 및 기업가정신 연구 분야에서 최근까지도 측정변수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기업가지향성, 자기효능감, 개인 성향, 경력지향성, 창업네트워크, 정부의 지원제도, 경제적인 상황, 창업교육 등 많은 요인들이 연구되어 왔다. Smith와 Miner[57]는 창업가의 특성인 위험감수성, 통제력, 성취욕구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하였고, Sandberg와 Hoffer[58]는 개인의 위험감수성, 성취감, 불확실성 감수 등의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지에 긍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외의 많은 선행 연구들이 기업가지향성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를 하였다.

위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업가지향성이 창업 의도에 긍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H7 : 위험감수성은 창업의도에 긍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8 : 혁신성은 창업의도에 긍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9 : 미래지향성은 창업의도에 긍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III. 연구모형과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 특성인 ADHD 성향과 스키마가 기업가지향성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가지향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로 연구모형을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를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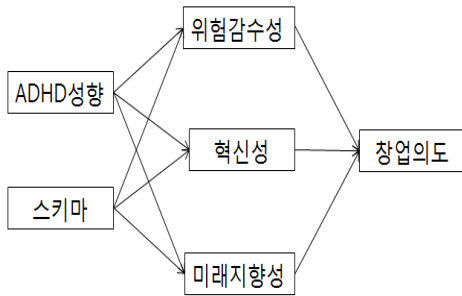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2.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은 2018년 11월 온라인 설문 조사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이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은 1995년생 이후 출생한 서울 및 수도권 4년제 대학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1차적으로 2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조사 11부를 제외한 189부를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ADHD 성향 측정은 선행연구들에서 활용한 ADHD Self-Report Screener (ASRS-6)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3][6][17][59]. 스키마 측정은 선행연구들에서 활용한 척도를 수정하여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8][41]. 기업가지향성은 Bolton과 Lane[10]이 개발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위험감수성 3문항, 혁신성 4문항, 미래지향성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창업의도는 Crant[60]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모든 변수들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는 Amos 22.0 으로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고,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였다.

3. 인구통계적 특성

먼저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 같다. 전체응답자 189명 중 남성이 50.3%, 여성이 49.7% 였다. 연령별 분포는 19세 14.8%, 20세 13.8%, 21세 18.0%, 22세 22.8%, 23세 30.7% 였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 4년제

대학 61.9%, 인천 4년제 대학 4.8%, 경기 4년제 대학 33.3% 였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8.5%, 2학년 30.2%, 3학년 30.7%, 4학년 20.6% 였다. 전공은 인문사회계 41.3%,이공계 47.1%, 기타 11.6% 였다. 직계가족 중 창업한 사람이 있는 지에 대한 분포는 있다 22.8%, 없다 77.2% 였다. 마지막으로 창업교육 받아본 경험 여부에 대한 분포는 있다 19.6%, 없다 80.4%로 나타났다.

표 1. 인구통계적 분석

| 성별 | 빈도 | 백분율 |
|-------|-----|------|
| 남 | 95 | 50.3 |
| 여 | 95 | 49.7 |
| 연령별 | 빈도 | 백분율 |
| 19세 | 28 | 14.8 |
| 20세 | 26 | 13.8 |
| 21세 | 34 | 18.0 |
| 22세 | 43 | 22.8 |
| 23세 | 58 | 30.7 |
| 지역별 | 빈도 | 백분율 |
| 서울 | 117 | 61.9 |
| 인천 | 9 | 4.8 |
| 경기 | 63 | 33.3 |
| 학년 | 빈도 | 백분율 |
| 1학년 | 35 | 18.5 |
| 2학년 | 57 | 30.2 |
| 3학년 | 58 | 30.7 |
| 4학년 | 39 | 20.6 |
| 전공 | 빈도 | 백분율 |
| 인문사회계 | 78 | 41.3 |
| 이공계 | 89 | 47.1 |
| 기타 | 22 | 11.6 |
| 창업가족 | 빈도 | 백분율 |
| 있다 | 43 | 22.8 |
| 없다 | 146 | 77.2 |
| 창업교육 | 빈도 | 백분율 |
| 있다 | 37 | 19.6 |
| 없다 | 152 | 80.4 |

IV. 연구결과

1.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 타당성 검증은 설문 구성의 개념을 타당성 관점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모든 측정변수의 구성요인을 결정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직교회전 방식의 하나인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개별요인에서 상대적 중요도를 보여주는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값은 0.5이상인 요인만을 채택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래지향성 1문항과 ADHD 성향 2문항을 분석에서 제거하였다. 신뢰성이란 동일한 개념을 반복적으로 측정해보았을 때 측정값들의 분산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알파계수(Chronbach's Alpha)로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각각의 알파계수를 보면 ADHD ($\alpha=.673$), 스키마 ($\alpha=.834$), 위험감수성 ($\alpha=.753$), 혁신성 ($\alpha=.892$), 미래지향성 ($\alpha=.659$), 창업의도 ($\alpha=.889$) 로 나타났다. 0.6 이상의 값을 가지면 측정항목의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모든 변수가 0.6 이상 값을 나타내어 모두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확인적 요인 분석

잠재요인 대상으로 확인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체잠재요인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요인 부하량이 기준치 0.5을 상회하고, 유의확률이 0.05미만으로 유의한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CR지수도 기준치 0.7이상, ADHD를 제외한 모든 측정변수의 분산추출지수(AVE)도 기준치 0.5을 상회하고 있어 각 요인의 내적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DHD 연구의 경우 선행연구에서도 표준화 요인부하량 값이 본 연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여도 분석으로 활용하였다[3][17]. 전체적인 구조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적합도지수 χ^2 통계량 217.124, 자유도(df) 137, CFI 0.95(기준치 0.9 이상), TLI 0.937(기준치 0.9 이상), RMSEA는 0.05이하는 좋은 적합도이고, 0.08이하는 양호한 적합도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모형에서는 RMSEA=0.056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위의 결과를 보아 이론적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측정변수명 | | 요인 부하량 | 표준화 요인 부하량 | P | CR | AVE | |
|----------|---------|--------|------------|------|------|------|------|
| 청년 세대 특성 | ADHD 성향 | A1 | 1 | .603 | | .746 | .343 |
| | | A2 | .953 | .615 | .001 | | |
| | | A3 | 1.034 | .55 | .001 | | |
| | | A4 | 1.041 | .572 | .001 | | |
| | 스키마 | S6 | 1 | .747 | | .899 | .632 |
| | | S7 | 1.194 | .805 | .001 | | |
| | | S8 | 1.284 | .83 | .001 | | |
| | | R9 | 1 | .72 | | | |
| 위험 감수성 | R10 | 1.006 | .707 | .001 | | | |
| | R11 | 1.035 | .703 | .001 | | | |
| | 기업가 지향성 | 혁신성 | I12 | 1 | .805 | | .917 |
| I13 | | | 1.203 | .894 | .001 | | |
| I14 | | | .928 | .751 | .001 | | |
| I15 | | .977 | .834 | .001 | | | |
| 미래 지향성 | P16 | 1 | .774 | | .71 | .504 | |
| | P17 | .948 | .64 | .001 | | | |
| 창업 의도 | E19 | 1 | .868 | | .882 | .736 | |
| | E20 | 1.022 | .906 | .001 | | | |
| | E21 | .966 | .797 | .001 | | | |

| χ^2 | DF | RMR | CFI | TLI | RMSEA |
|----------|-----|------|-----|------|-------|
| 217.24 | 137 | .042 | .95 | .937 | .056 |

3.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하기 위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변수들 간에 함수 관계를 갖는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AMOS 22.0)을 실시하였다. 모델 적합도 지수는 $\chi^2 = 244.599$ (자유도=141), CFI = 0.935(기준치 0.9 이상), TLI = 0.921(기준치 0.9 이상), RMSEA= 0.063, RMR = 0.054 (RMSEA, RMR 0.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08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으로 본 연구 모형의 설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검증을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가설 설정을 하였고,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표 3]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각 가설 검증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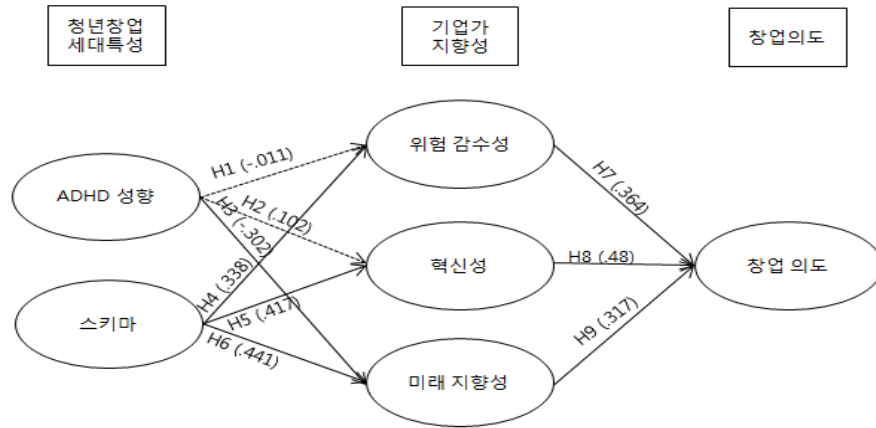


그림 2. 연구결과모형도

표 3.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결과

| 가설 | 경로 | 표준화계수 | S.E | C.R | P | 채택여부 |
|------|----------------|-------|------|--------|------|------|
| 가설 1 | ADHD성향 → 위험감수성 | -.011 | .131 | -.082 | .935 | 기각 |
| 가설 2 | ADHD성향 → 혁신성 | .102 | .147 | .691 | .49 | 기각 |
| 가설 3 | ADHD성향 → 미래지향성 | -.302 | .146 | -2.072 | .038 | 채택 |
| 가설 4 | 스키마 → 위험감수성 | .338 | .091 | 3.705 | .001 | 채택 |
| 가설 5 | 스키마 → 혁신성 | .417 | .1 | 4.152 | .001 | 채택 |
| 가설 6 | 스키마 → 미래지향성 | .441 | .099 | 4.452 | .001 | 채택 |
| 가설 7 | 위험감수성 → 창업의도 | .364 | .171 | 2.134 | .033 | 채택 |
| 가설 8 | 혁신성 → 창업의도 | .48 | .13 | 3.686 | .001 | 채택 |
| 가설 9 | 미래지향성 → 창업의도 | .317 | .119 | 2.655 | .008 | 채택 |

ADHD 성향이 기업가지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결과가 다음과 같다. ADHD성향이 위험감수성과 혁신성에 긍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과 가설 2는 모두 기각되었다. 하지만 ADHD성향이 미래지향성에 부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스키마가 기업가지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스키마는 위험감수성, 혁신성, 미래지향성에 긍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 5, 6 모두 채택되었다.

기업가지향성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다음의 결과가 나왔다. 기업가지향성의 구성요소인 위험감수성, 혁신성, 미래지향성이 창업의도에 긍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7, 8, 9 모두 채택되었다.

V. 결론

1. 연구결과요약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ADHD 성향과 스키마가 기업가지향성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실증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DHD 성향은 위험감수성과 혁신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미래지향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키마는 기업가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가지향성도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ADHD 성향이 높을수록 미래지향성이 낮아서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스키마는 기업가지향성을 통해서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2.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해외의 선행연구들의 흐름과 같이 국내에서 ADHD 성향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라는데 이론적 시사점이 있다. 둘째, 스키마가 기업가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스키마에 대한 연구 범위를 확장시켰다. 기존의 스키마를 변수로 사용했던 기업가정신의 연구들이 기회의 발견, 기업가적 기민성, 소셜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스키마와 기업가지향성 및 창업의도와와의 관계를 확인한 측면에서 이론적 시사점이 있다. 셋째, ADHD 성향이 기업가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 이론적 시사점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기업가지향성이 위험감수성과 혁신성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DHD 성향의 사람들은 일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위험감수성이 증가되고[62], 과잉행동이 발휘될 때 혁신성이 발휘되는데 선행연구의 대상과 본 연구의 대상이 놓여진 상황에는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의 샘플들은 기업가와 성인이기 때문에 치열한 상황인 반면에 본 연구의 샘플은 만 19세~23세의 대학생으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것이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ADHD 성향은 미래지향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15][16] 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ADHD 성향이 높을수록 미래지향성이 낮아지고, 이것이 창업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창업 교육자들은 ADHD 성향의 학생들에게는 미래지향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창업 실행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실무적 시사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키마는 기업가지향성 구성요소인 위험감수성, 혁신성, 미래지향성 모두에 긍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교육자들은 스키마는

반복적인 경험과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개발시킬 수 있다는 것[61]을 염두하여 스키마 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기업가적 기회발견 가능성을 높일 뿐만 기업가지향성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ADHD 성향의 사람들의 강점이라고 보고한 위험감수성과 혁신성이 한국의 청년들에게 발휘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자들은 현장감 있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창업지원기관은 실전 창업의 경험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ADHD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기준치에 비해 낮게 나왔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선행연구에 비하면 다소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적합한 척도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ADHD성향과 스키마 두 가지 특성만 연구했다는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존감, 회복탄력성과 같은 다양한 특성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면 확장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를 창업의도를 보았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행동(Entrepreneurial Action), 성과(Performance)와 같은 종속변수로 연구를 확장한다면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1] <https://www.forbes.com/sites/dalearcher/2014/05/14/adhd-the-entrepreneurs-superpower/#66d9dccc59e9>, 2018.10.5
- [2] N. Dimic and V. Orlov, "Entrepreneurial tendencies among people with ADHD," *International Review of Entrepreneurship*, Vol.13, pp.187-204, 2014.
- [3] I. Verheul, J. Block, K. Burmeister-Lamp, R. Thurik, H. Tiemeier, and R. Turturea, "ADHD-like behavior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Small Business Economics*, Vol.45, pp.85-101, 2015.

- [4] L. E. Knouse, L. Traeger, C. O'Leirigh, and S. A. Safren, "Adult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ymptoms and five-factor model traits in a clinical sample: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Vol.201, No.1, pp.848-854, 2013.
- [5] J. R. Halbesleben, A. R. Wheeler, and K. K. Shanine, "The moderating role of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in the work engagement-performance proces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Vol.18, No.2, pp.132-143, 2013.
- [6] J. Wiklund, H. Patzelt, and D. Dimov, "Entrepreneurship and psychological disorders: How ADHD can be productively harnessed,"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Insights*, Vol.6, pp.14-20, 2016.
- [7]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 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 x=145580>, 2018.12.5.
- [8] Z. Kunda, *Social Cognition: Making Sense of People*, MIT Press, 1999.
- [9] G. T. Lumpkin and G. G. Dess,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1, No.1, pp.135-172, 1996.
- [10] D. L. Bolton and M. D. Lane, "Individual entrepreneurial orientation.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instrument," *Education + Training*, Vol.54, No.2/3, pp.219-233, 2012.
- [1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2013.
- [12] R. A. Barkley, M. Fischer, L. Smallish, and K. Fletcher, "The persistence of ADHD into young adulthood as a functioning of reporting source and definition of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111, No.2, pp.279-289, 2002.
- [13] C. Advokat, S. M. Lane, and C. Luo, "College students with and without ADHD: Comparison of self-report of medication usage, study habits,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Attention Disorders*, Vol.15, No.8, pp.656-666, 2011.
- [14] L. M. Garnier-Dykstra, G. M. Pinchevsky, K. M. Caldeira, K. B. Vincent, and A. M. Arria, "Self-reported adult Attention-Deficit / Hyperactivity Disorder symptom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Vol.59, No.2, pp.133-136, 2010.
- [15] 장문선, 곽호완, "성인 ADHD 성향 집단의 하위 군집 탐색: 우울증상, 자존감, 및 대인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임상*, 제26권, 제4호, pp.827-843, 2007.
- [16] 홍승희, 이승연, "성인기 ADHD 성향과 부적응 적 분노행동의 관계: 외적 권태성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5권, 제3 호, pp.1215-1233, 2014.
- [17] R. C. Kessler, L. A. Adler, M. J. Gruber, C. A. Sarawate, T. Spencer, and D. L. Van Brunt, "Validity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dult AD/HD Self-Report Scale (ASRS) in a representative sample of health plan members," *International Journal of Methods in Psychiatric Research*, Vol.16, No.2, pp.52-65, 2007.
- [18] R. A. Barkley, "Behavioral inhibition, sustained attention, and executive functions: Constructing a unifying theory of ADHD," *Psychological Bulletin*, Vol.121, No.1, pp.65-94, 1997.
- [19] R. A. Barkley and K. Murphy, "Impairment in occupational functioning and adult ADHD: The predictive utility of executive function (EF) ratings versus EF tests," *Archives of Clinical Neuropsychology*, Vol.25, pp.157-173, 2010.
- [20] S. Mannuzza, R. G. Klein, A. Bessler, P. Malloy, and M. LaPadula, "Adult outcome of hyperactive boys: Education achievement,

- occupational rank, and psychiatric statu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Vol.49, pp.565-576, 1993.
- [21] S. Shane, L. Kolvareid, and P. Westhead, “An exploratory examination of the reasons leading to new firm formation across country and gende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6, pp.431-446, 1991.
- [22] N. Breslau, H. D. Chilcoat, R. C. Kessler, and G. C. Davis, “Previous exposure to trauma and PTSD effects of subsequent trauma: Results from the Detroit Area Survey of Trauma,”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56, pp.902-907, 1999.
- [23] R. J. Turner and D. A. Lloyd, “Lifetime traumas and mental health: The significance of cumulative advers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36, pp.360-376, 1995.
- [24] M. D. Seery, R. J. Leo, S. P. Lupien, C. L. Kondrak, and J. L. Almonte, “An upside to adversity? Moderate cumulative lifetime adversity is associated with resilient responses in the face of controlled stressors,” *Psychological Science*, Vol.24, No.7, pp.1181-1189, 2013.
- [25] L. Wilmschurst, M. Peele, and L. Wilmschurst, “Resilience and well-being in college students with and without a diagnosis of ADHD,” *Journal of Attention Disorders*, Vol.15, No.1, pp.11-17, 2011.
- [26] S. Young, “Coping strategies used by adults with ADH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38, pp.809-816, 2005.
- [27] G. D. Markman, R. A. Baron, and D. B. Balkin, “Are perseverance and self-efficacy costless? Assessing entrepreneurs’ regretful thinking,”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26, pp.1-19, 2005.
- [28] W. Roberts, J. R. Peters, Z. W. Adams, D. R. Lynam, and R. Milich, “Identifying the facets of impulsivity that explain the relation between ADHD symptoms and substance use in a nonclinical sample,” *Addictive Behaviors*, Vol.39, No.8, pp.1272-1277, 2014.
- [29] N. Nicolaou, S. Shane, L. Cherkas, and T. D. Spector, “The influence of sensation seeking in the heritability of entrepreneurship,”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Vol.2, No.1, pp.7-21, 2008.
- [30] C. J. Jackson, “How sensation seeking provides a common basis for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outcom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45, No.1, pp.29-36, 2011.
- [31] P. J. O’Connor and C. Jackson, “Learning to be saints or sinners: the indirect pathway from sensation seeking to behavior through mastery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Vol.76, No.4, pp.733-752, 2008.
- [32] H. A. White and P. Shah, “Uninhibited imaginations: Creativity in adults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40, pp.1121-1131, 2006.
- [33] H. A. White and P. Shah, “Creative style and achievement in adults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50, pp.673-677, 2011.
- [34] I. Marx, G. Domes, C. Havenstein, C. Berger, L. Schulze, and S. C. Herpertz, “Enhanced emotional interference on working memory performance in adults with ADHD,” *The World Journal of Biological Psychiatry*, Vol.12, No.1, pp.70-75, 2011.
- [35] J. S. McMullen and D. A. Shepherd, “Entrepreneurial action and the role of uncertainty in the theory of the entrepreneu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31, No.1,

- pp.132-152, 2006.
- [36] A. Bechara and M. Van Der Linden, "Decision-making and impulse control after frontal lobe injuries," *Current Opinion in Neurology*, Vol.18, No.6, pp.734-739, 2005.
- [37] M. P. Paulus, "Decision-making dysfunctions in psychiatry-altered homeostatic processing?," *Science*, Vol.318, No.5850, pp.602-606, 2007.
- [38] P. Reynolds and B. Miller, "New firm gestation: conception, birth, and implications for researc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7, No.5, pp.405-417, 1992.
- [39] F. Delmar and S. Shane, "Does business planning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new ventur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24, No.12, pp.1165-1185, 2003.
- [40] C. Gaglio and J. Katz, "The psychological basis of opportunity identification: entrepreneurial alertness," *Small Business Economics*, Vol.16, pp.95-111, 2001.
- [41] E. Ozgen and R. A. Baron, "Social sources of information in opportunity recognition: Effects of mentors, industry networks, and professional forum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22, pp.174-192, 2007.
- [42] V. Fernandez-Perez, A. J. VerdJover, and J. Benitez-Amado, "Managerial socialnetworks and strategic flexibility: the role of strategic orientation," *Personnel Review*, Vol.42, No.2, pp.134-153, 2013.
- [43] B. Rehder, "Categorization as causal reasoning," *Cognitive Science*, Vol.27, No.5, pp.709-748, 2003.
- [44] M. A. Lyles and C. R. Schwenk, "Top management, strategy and organizational knowledge structures,"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Vol.29, pp.155-174, 1992.
- [45] J. L. Dutton, L. Fahey, and V. K. Narayanan, "Toward understanding strategic issue diagnosi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4, No.4, pp.307-323, 1983.
- [46] J. B. Thomas, S. M. Clark, and D. A. Gioia, "Strategic sensemaking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linkages among scanning, interpretation, action and outcom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36, pp.239-270, 1993.
- [47] C. M. Fiol and E. J. O'Connor, "Waking up! mindfulness in the face of bandwag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8, pp.54-70, 2003.
- [48] S. Nadkarni and V. K. Narayanan, "Strategic schemas, strategic flexibility, and firm performance: the moderating role of industry clockspeed,"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28, pp.243-270, 2007.
- [49] J. Kickul, L. K. Gundry, S. D. Barbosa, and L. Whitcanack, "Intuition versus analysis? Testing differential models of cognitive style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the new venture creation proces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33, No.2, pp.439-453, 2009.
- [50] V. Fernandez-Perez, P. E. Alonso-Galicia, L. Rodruéz-Ariza, and M. Fuentes-Fuentes, "Professional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a bridge to entrepreneurship for academics?," *European Management Journal*, Vol.33, pp.37-47, 2015.
- [51] R. L. Daft and K. E. Weick, "Toward a model of organizations as interpretation system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9, pp.284-295, 1984.
- [52] V. Fernández-Pérez, V. J. García-Morales, and D. C. Pullés, "Entrepreneurial Decision-Making, External Social Networks and Strategic Flexibility: The Role of Ceos' Cognition,"

European Management Journal, Vol.34, No.3, pp.296-309, 2016.

[53] M. Tubbs and S. Ekegerg, "The Role of Intentions in Work Motivation: Implications for Goal-setting Theory and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6, pp.180-199, 1991.

[54] I. Ajze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50, No.2, pp.179-211, 1991.

[55] N. Krueger, M. Reilly, and A. Carsrud,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5, No.5-6, pp.411-432, 2000.

[56] B. Bird,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3, No.3, pp.442-453, 1988.

[57] Norman R. Smith and B. John, "Type of Entrepreneur, Type of Firm, and Managerial Motivation: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Life Cycle Theor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4, No.4, pp.325-340, 1983.

[58] William R. Sandberg and Charles W. Hofer, "Improving new venture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y, industry structure, and the entrepreneu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2, No.1, pp.5-28, 1987.

[59] R. Thurik, A. Khedhaouria, O. Torr'es, and I. Verheul, "ADHD symptoms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f small firm owners," *Applied Psychology*, Vol.65, pp.568-586, 2016.

[60] J. M. Crant, "Proactive behavior in organizations," *Journal of Management*, Vol.26, No.3, pp.435-462, 2000.

[61] W. Whitely, T. M. Dougherty, and G. F. Dreher, "Relationship of career mentoring and socioeconomic origins to managers' and professionals' early career progres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34, pp.331-351, 1991.

[62] Deakin Julia, Aitken, Michael Robbins, Trevor Sahakian, and J. Barbara, "Risk taking during decision-making in normal volunteers changes with ag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uropsychological Society*, Vol.10, No.4, pp.590-598, 2004.

저 자 소 개

김 영 수(Young-Su Kim)

정회원



- 1989년 2월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사)
- 1991년 5월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행정학석사)
- 1997년 9월 : 미국, Boston University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1999년 9월 ~ 현재 :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관심분야> : 경영전략, 벤처경영, 인사조직

정 회 도(Hoi-Do Jeong)

정회원



- 2011년 2월 :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경영학사)
- 2013년 2월 :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경영학석사)
- 2016년 12월 :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박사과정수료

▪ 2016년 9월 ~ 현재 : 숭실대학교 평생교육원 벤처창업과 외래교수

<관심분야> : 청년창업, 기업가정신